



베스트셀러(인문)

1. 역행자/자칭/웅진지식하우스
2. 불편한 편의점

(6월 27일~7월 2일/예스24 제공)

3. 작별인사



오디오북 인기 순위

1. 호접몽전/최영진/폭스커너
2. 예외의 탄생

(6월 27일~7월 2일/윙라 제공)

3. 마담 타로

국방일보 12·13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새로운 팬데믹, 막을 수 있을까

빌 게이츠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

“새로운 팬데믹이 온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답은 ‘예스’다. 지난 5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다보스포럼)에서 빌 게이츠는 “아웃브레이크(전염병 발생 및 급증)가 감지되고 100일 이내에 감염을 통제하면 사망률을 2%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빌 게이츠 지음
이영래 번역
비즈니스북스 펴냄

스타트업을 키우는 힘, 혁신

한국의 스타트업 혁신을 혁신하는 법

스타트업은 많지만 성공한 스타트업은 많지 않다. 창업보다 회사를 유지하는 일이 훨씬 힘들기 때문이다. 창업 후 위기와 고비의 데스밸리를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인공지능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사업 총괄 이사이자 플랫폼 비즈니스 및 스타트업 전문가로 활동하는 저자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비법으로 ‘자기 혁신’을 제시하며 실전 경영 전략을 안내한다.



임성준 지음
유노북스 펴냄

군생활 30년 비하인드 스토리

군과 언론 이야기

저자는 군생활 30년 동안 언론홍보를 주로 담당했던 예비역 육군대령이다. 북한 상선 영해침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을 거치며 겪은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주요 군사 상황과 사태의 이면에 있는 내용 중에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를 정리하며 소회를 풀어냈다. 또한 군과 언론의 상관관계, 갈등의 양상과 해소를 위한 접근방법, 언론에 관한 상식과 이해를 다뤘다.



윤원식 지음
행복에너지 펴냄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이해했다

오늘 밤 남의 차를 몰니다

잡지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자동차 전문 에디터로 일했던 기자가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에디터 시절엔 자동차라는 상품의 물성(物性)에만 주목했지만, 대리기사가 된 후엔 차를 타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함께 달리는 시간은 길어야 한 시간. 그러나 손님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좁고 컴컴한 차 안에서 가장 진솔해졌다. 같은 도시에 살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웃으로서 그들을 가까이서 관찰한 기록을 엮었다.



이재현 지음
우주북스 펴냄

작가와의 만남 / 배명훈

“과학이론 따지다보면 SF의 재미 놓치기 쉽죠”



우주섬 사비의 기묘한 탄도학

배명훈 지음/자이언트북스 펴냄

배명훈 작가와 만났던 날은 지난 달 14일이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이탈리아를 다녀왔다고 했다. 그의 책 『탄위』의 현지 출판을 기념해 주요 도시를 돌며 북토크를 진행하는 일정이었다고. 해외 독자와 만나 북토크를 한 건 처음이었는데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제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런 모습이 신기했죠. 한국 독자들하고 다른 점은 캐릭터보다는 작품이 그려내는 세계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북토크가 서울이나 대도시의 대형서점에서 주로 진행되는데 이탈리아는 훨씬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SF 공모전으로 데뷔… 우주도시 배경 신작

사회엔 날카로운 시선·독자엔 따뜻한 위로

“정치·세계에 대한 관심 우주로 확장

과학 지식보다 상상력·본인의 색깔 중요”

배 작가는 2005년 SF 공모전에 단편소설 『스마트 D』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안녕, 인공존재!』, 『예술과 중력가속도』 등 소설집과 장편소설 『고고 심령학자』, 『신의 궤도』 등을 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F 작가(에세이 『SF 작가입니다』도 발표했다)다. 최근 출간한 『우주섬 사비의 기묘한 탄도학』은 그의 일곱 번째 장편소설. 작가 특유의 재기발랄한 상상력과 세계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인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꿈을 찾고 상처를 극복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독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 타키 작가 아지즈 네신에게서 영향을 받았어요. 사회 부조리를 날카로운 유머로 풍자했던 사람이죠. 저도 읽으면서 자꾸 웃음이 나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터가 장르소설이 유행하고 SF 소설들 역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SF 마니아들 중에는 소설에 담긴 세계관보다는 과

학적인 접근으로 오류를 잡아내고 싶어 하고 풍자적 재미를 못마땅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배 작가는 SF 소설이란 우주로 확장된 또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장르라면서 완벽한 과학이론을 따지다 보면 소설적 재미를 느낄 수 없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

“저도 이과 출신이 아니거든요. SF 소설 작가 중에 과학을 전공한 분은 오히려 많지 않을 겁니다. 혹시 장병들 중에도 SF 장르에 관심 있는데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주저하고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자기만의 목소리와 색깔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우주섬 사비의 기묘한 탄도학』의 배경인 사비는 별 볼일 없는 우주도시다. 화성 침공이 계획되던 시절 병력을 주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계획이 흐지부지되면서 그저 그런 도시로 남게 된 것이다. 이곳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무관심하고 경찰은 폭력 조직에 가깝다. 경찰보다는 여러 폭력조직의 우두머리들이 정기적으로 만남 회담을 하는 덕분에 겨우 평화가 유지되는 형편이다. 이런 비틀린 세계상은 할리우드 서부영화와 1980년대 홍콩 누아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도 겹쳐 보인다. 하지만 배 작가는 이 부조리한 세계를 단죄하거나 낭만으로 감싸지 않는다. 스나이프 한면지와 그를 찾아다니는 지구에서 온 초목, 그리고 공무원 수미야 모두 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들의 작은 선의가 모여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비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거듭난다.

한편 이번 작품은 CJ ENM과 블러썬크리에이티브가 함께 기획한 IP 발굴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영상물로 확장될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하다.

“제 전공이 국제정치(서울대 외교학과)예요. 그러다 보니 정치와 세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상상을 우주에까지 확장시키는 게 저의 소설들이고요. 최근에는 외교부 의뢰로 ‘인간이 정착한 이후 화성에서 펼쳐질 행정 규모’의 거버넌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했습니다.”

SF 작가가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배 작가는 공군에서 장교(행정)로 군 생활을 했다. 『빙글빙글 우주군』 등 여러 작품에 군 생활 하며 알게 된 지식과 체험이 녹아있기도 하다.

“장병들이 동시에 젊은이들이 쓴 작품을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상상력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작가라는 직업을 꿈꾸다면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서 엉뚱한 이야기를 글로 써보세요.”

박지숙 기자/사진=블러썬 엔터테인먼트 제공

알수록 알고 싶은… 욕망과 권력의 상징



권총의 과학

기노 요사노리 지음
신한 번역/보너스 펴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전장, 한 병사가 독일군 권총 장교를 사살하고 루거 권총을 노획한다. 평소 루거 권총을 가지고 싶었던 그는 권총을 자랑하다 실수로 자기 허벅지를 쏘고 동맥이 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Band of Brothers)’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쟁 드라마에 나오는 에피소드다. 많은 시청자가 그 장면에서 ‘저렇게 어리석은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편 ‘대체 루거 권총이 뭐지? 그렇게 탐나는 물건인가?’라고 의문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권총은 욕망과 권력의 상징으로 대중매체에 등장하기도 하고 오래 세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품은 물건이었다. 또한 전자, 소총, 미사일, 합선, 전락 전술 등 광범위한 영역의 밀리터리 분야

에서도 권총은 당연히 한자리를 차지한다.

저자는 군인 출신의 군사 무기 전문가로 권총의 대명사인 리볼버와 피스톨을 중심으로 권총 관련 지식을 모아 책을 썼다.

권총의 기본 구조와 작동원리, 권총의 유래, 권총용 탄약과 탄도학 지식 등을 소개한다. 핵심을 정리한 그림과 사진 자료를 더해 이해가 쉽도록 했다. 권총의 기초, 탄약의 구조, 권총의 메커니즘, 조준과 조준 장치, 권총의 취급, 사격술, 홀스터, 탄도의 과학, 세계의 주요탄약 등 9개 장으로 구성

됐다.

저자는 권총에 관심이 있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알아내기 힘들다면 이 책으로 기본 지식을 익히고 모형총을 사서 사격술과 취급법의 기초를 닦아보라고 권한다.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를 머리로 익히고 권총을 직접 다루면서 머릿속에 담긴 지식을 몸에 새기라는 것. 지식과 경험이 하나가 될 때 권총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권총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지숙 기자

진중문고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자



김민수 병장
육군27사단
용호여단



박웅현 지음
북하우스 펴냄

『여덟 단어』를 읽고

많은 사람이 과거에 실수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며 살아간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 또한 앞에서 말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을 후회와 걱정 속에서 스스로 갇아먹으며 살아왔다. 군 생활을 하면서 저지르는 반복되고 잦은 실수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었으며, 자책하면 자책할수록 점점 더 위축되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항상 지레 겁부터 먹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성격은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많은 배움과 경험의 기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진중문고 도서 『여덟 단어』에서 저자는 그가 생각하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여덟 개의 키워드로 나누어 설명한다. 나는 그 키워드 중에서 ‘현재’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 책에서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을 간단하게 ‘밥 먹을 때 이런저런 걱정 하지 말고 밥만 먹고, 잠잘 때는 다른 계획 세우지 말고 잠만 자라’고 설명한다. 다른 생각 하지 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다. 이 말이 누구에게든 가깝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게서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다. 매일 취침시간이면 다음 날 하게 될 작업, 일과, 훈련 등과 같은 잡생각으로 걱정하며 잠을 뒤척이던 날들이 떠오르며, ‘나는 지금까지 겨우 잠자는 일조차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뒤로 나는 앞으로 후회와 걱정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나의 군 생활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먼저 잡생각을 없애고 잠자는 것에 집중하면서부터 수면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어 일과시간 피로도도 상당히 감소했다. 또한, 다른 걱정을 없애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서 실수는 점점 줄어들고 내 안이 자신감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일에 관한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최선을 다한 일이라면 그것은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후회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현재이다. 후회와 걱정은 우리가 현재를 사는 데 발목만 잡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앞으로도 나는 남은 군 생활 기간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보낼 계획이다. 걱정하고 염치 있으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한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변화하도록 도움을 준 이 책을 과거에 대한 후회에 젖어 바로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 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미리 좌절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